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20.(수) 12:00  
(지면) 2026. 5. 21.(목) 조간

## 버려지던 폐현수막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 개최

- 플라스틱 원료(나프타) 수급난 및 6월 지방선거 현수막 증가 대응
- 우수기관 6곳 선정해 장관상 수여, 현수막 재활용률 48.4% 달성 등 가시적 성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수막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3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플라스틱 제품 부족 현상이 우려되는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수막의 설치와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설치된 현수막은 지방정부의 회수·지원체계와 연계해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하는 경진대회를 연다.

### >> 재활용률 1년 새 15.1%p 증가, 지방정부 조례도 25배 늘어

지난해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톤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8.4%인 2,418톤이 재활용됐다. 이는 발생량은 2024년 5,409톤 대비 8% 줄어든 수치이며, 지난해 재활용률 33.3%(1,801톤)와 비교했을 때 15.1%p가 상승한 성과다.

특히 2024년부터 두 부처가 공동으로 경진대회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제도적 기반도 탄탄해지고 있다. 폐현수막 재활용 관련 지방정부의 조례는 2024년 5월 기준 5건에 불과했으나, 2년 만인 2026년 5월 현재 126건으로 25배가 급증하는 등 경진대회가 지방정부의 자발적 노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도 하고 있다.

## >> 우수 모델 발굴해 장관상 수여, 6월 19일까지 계획서 접수

이번 경진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오는 6월 19일까지 폐현수막 순환이용 계획서를 제출하고, 1차 평가에 통과하면 10월 30일까지 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원순환 및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우수기관 6팀을 선정한다. 공공부문 우수기관 3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이, 민관협업부문 우수기관 3팀에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이 각각 수여된다.

## >> 가구부터 자동차 소재까지, 진화하는 재활용 기술 지원 확대

지난해 대회에서는 전용 수거함과 공용집하장을 설치하고, 자치구에 폐현수막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행정관리의 표준화를 이룬 서울특별시가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관 협업부문에서는 폐현수막을 수거해 재활용(업사이클링)한 뒤 사회복지시설에 환원하여 민관 협업의 모범 모델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현대아울렛 가든파이버점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부는 우수사례 발굴을 넘어 재활용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세종시, 강릉시, 청주시, 나주시, 창원시 5개 지방정부와 SK케미칼, 세진플러스, 리벨롭, 카카오 4개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폐현수막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역시 폐현수막의 재활용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외장재 소재 개발’ 과제에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부여하며 고부가가치 기술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폐현수막 문제는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 도시경관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정책이 함께 연결된 생활 밀착형 과제”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창의적인 재활용 모델과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폐현수막의 자원화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고웅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원천 감량부터 지속가능한 설계·생산, 회수·재활용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폐현수막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지원하여 탈플라스틱 전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박희건	(044-205-3551)
	주소정보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신	(044-205-3542)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정민경	(044-201-7386)



**□ 추진 배경**

- 현수막 발생 감량 및 회수·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 구축

**□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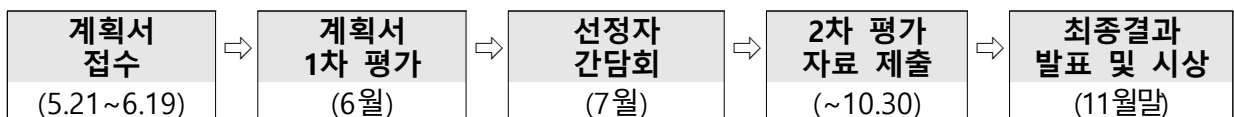
- 행사명 :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
- 접수기간 : 2026년 5월 21일 ~ 6월 19일
- 참가대상 : 공공 단독 또는 민·관 협업
  - (공공 단독)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민·관 협업)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민간 기업
- \* 전년도 최우수 대상 기관 참여 불가
- 평가범위 : 2026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 포 상 : 공공/민관 부문별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관상 수여

구 분	최우수		우수	
공공 단독	1팀	행안부 장관상	2팀	행안부 장관상
민·관 협업	1팀	기후부 장관상	2팀	기후부 장관상
총 계	2팀		4팀	

\* (공통) 입상 기관 대상 홍보 지원(전시회 참여 및 SNS 홍보 등)

**□ 평가 계획**

- (1차평가) 계획서 제출 → 서류 적절성 확인
  - ※ 계획서 제출은 기후부 자원재활용과로 전자메일 송부(youngchoi@korea.kr)
- (2차평가)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상세 평가방법 및 실적보고서 양식은 1차 평가 선정자 간담회에서 별도 안내
- (평가절차)



**서울특별시**  
※ 폐현수막 공용집하장(성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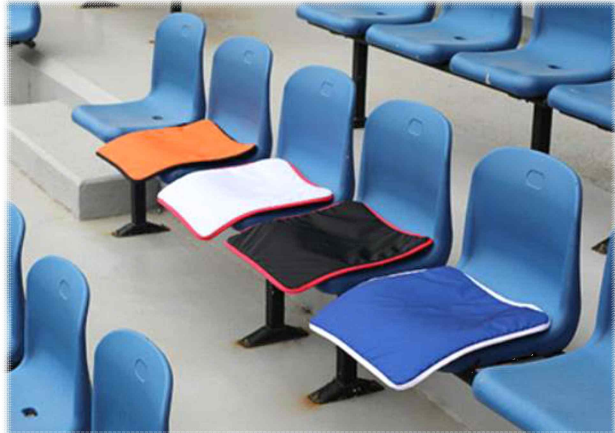
**경북 예천군**  
※ 업사이클 제품 전문 제작인력 채용



**부산 동래구**  
※ 매월 구민과 함께하는 청소하는 날 실시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마대 활용)



**건보공단(부울경), 현대아울렛**  
※ 아울렛 등 수거 현수막으로 제작한 휴대용 방석



**충북 청주시, SK케미칼·(주)카카오·(주)세진플러스**  
※ 수거 현수막 등으로 제작한 가구



**경북 구미시, (주)에코섬코리아·구미자활센터**  
※ 초등학교 자원순환 체험교육

